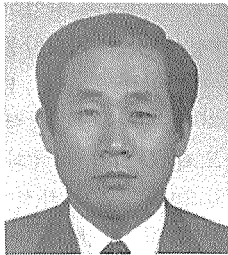


韓·台灣의 電子工業 輸出 여건 比較



洪 澤 基
産業研究院 責任研究員

우리나라는 유리한 기업규모나 조직력을 갖고 있음에도 대만보다 수출이 뒤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만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경제적 여건이 우리보다 유리하다. 기업의 자율성이나 객관적 요소들 즉, 금리의 안정, 환율의 안정, 나아가 물가의 안정이나 기업의 재무구조의 안정 등 여건이 우리보다 더 안정된 상황에서 대만의 기업은 우리보다 경쟁력을 더 유리하게 키워 나갈 수 있는 것이다.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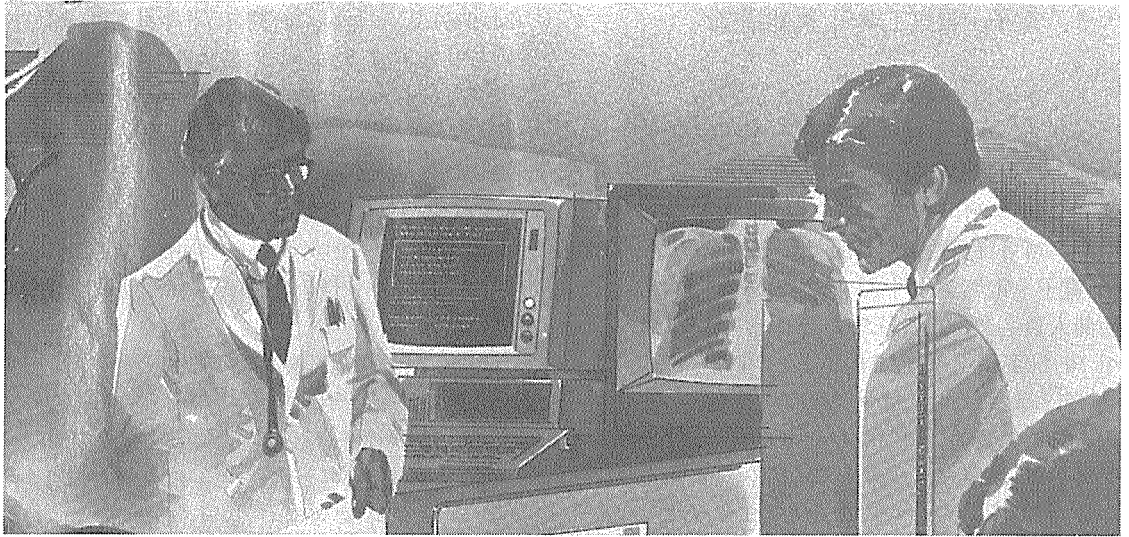
우리나라 電子産業은 1950年代末 라디오 組立 生産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는 약 25여 년 동안 큰 발전을 하여왔다. 1960年代 중반 重要輸出産業으로 지정된 이래 1970年代에 들어오면서 급속한 성장을 이룩한 電子産業은 모든 産業 中에서 纖維産業 다음으로 輸出比重이 큰 輸出主導産業으로 부각되었고, 또 戰略産業으로서 앞으로도 개발의 여지를 무한히 가지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더 인식되고 있다.

世界景氣의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主力技術 産業으로서, 또 主力輸出産業으로서 轉換期를 맞은 우리나라 電子産業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우리의 經濟發展 과정이나 발전 패턴이 유사하며 같은 先發開途國인 台灣의 電子産業(電氣포함)과 우리의 電子産業을 비교하므로써 우리나라 電子産業이 처한 여건과 국제경제상의 위치 등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2. 電子·電氣工業의 動向

1) 國際動向과 韓·台灣의 位置

世界 電子産業은 70年代에 들어오면서 先進國을 중심으로 高度技術産業으로 발전하였다. 先進國들은 80年代에 들어서면서 컴퓨터, 통신기기, 반도체, 情報産業 등 高度의 技術集約의인 部門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美·日을 중심으로 世界 電子産業이 주도되고 있다시피 한데, 美國은 주로 産業用 電子製品과 情報處理 機器, 通信部門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日本은 家庭用 電子製品과 반도체産業의 개발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世界 電子市場은 美 Electronics Week紙의 자료에 의하면, 1980년에 約2,140億弗 규모에서 1983년에는 約3,600億弗 규모로 연평균 18.9%의 高度成長을 기록하였으며 1985년에는 約4,900億弗, 그리고 1980年代말에는 約8,000億弗 이상의 규모에 달



전자공업은 무엇보다도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韓國은 1959年 진공관 라디오 組立으로부터 電子工業의 태동을 보았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품목의 輸入代替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輸出主導産業으로 育成·發展되어왔다. 政府는 電子工業을 育成하기 위하여 이미 1966年에 電子工業을 輸出戰略産業으로 지정하였고, 1969年에는 電子工業振興法을 제정하였으며 第5次 經濟社會開發 5 個年計劃에서도 전략산업으로 선정, 계속 育成해 나가고 있다.

한편 台灣은 우리나라보다 약 10여년이나 앞선 1948년부터 역시 진공관 라디오 組立을 서두로 電子工業이 育成되어 輸出主導産業이 되었으며 策略性 工業으로 지정되어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1983년 현재 韓·台灣이 世界 電子工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生産規模面에서는 台灣이 1.8%, 韓國이 2%를 각각 점하였으며 輸出規模面에서는 台灣이 3.8%, 韓國이 3%를 각각 점하여 生産에 있어서는 韓國이 우세했으나 輸出에 있어서는 台灣이 우세했다. 그러나 84년에 들어와서는 生産規模나 輸出規模에서 台灣이 韓國을 앞서므로서 그 비중도 台灣이 韓國보다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韓·台灣 양국은 生産, 技術水準, 輸出規模 및 海外市場構造 등에서 서로 비슷한 수준에 있어서 특히 海外市場에서는 경쟁관계에 있다. 다만 兩國의 電

子産業에서 다소 다른 일면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大企業을 중심으로 電子産業을 育成, 發展시켜 온 데 비해 台灣은 주로 中小企業을 중심으로 育成·發展시켜 온 점을 들 수 있다.

2) 電子·電氣工業의 國民經濟的 위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兩國은 모두 電子産業을 輸出主導産業으로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輸出依存도가 높은 韓國과 台灣의 경우 電子産業이 國民經濟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台灣의 경우 1984年 중 電子·電氣産業이 GNP 중 차지하는 비중은 17.4%인데 비하여 韓國은 13.7%이며 수출비중은 台灣이 21.3%인데 대해 韓國은 16.4%, 고용비중(제조업 중)은 台灣이 18.2%인데 비해 韓國이 8.2%를 각각 점하여 台灣의 電子·電氣産業의 國民經濟에 대한 비중이 韓國보다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다.

表 1. 電子·電氣産業의 國民經濟에 대한 비중
단위: %

	台灣		韓國	
	1981	1984	1981	1984
G N P 比重	12.9	17.4	7.3	13.7
輸出 比重	18.4	21.3	12.1	16.4
雇傭 比重(製造業中)	16.0	18.2	7.2	8.2

資料: 韓國銀行 調查統計月報(1984. 5.)

台灣, 自由中國之工業(1985. 4.)

中華民國勞工統計月報(1985. 2.)

3. 電子·電氣工業의 需給構造

1) 業体数·雇傭

台灣은 모든 産業에 있어서 中小企業이 난립해 있다. 특히 電子工業은 차츰 技術集約的 産業으로 변모되고 있으나 아직 勞動集約度가 크다. 그러나 台灣은 電力部門을 포함한 약 5,600여 電子·電氣業체가 난립해 있으며 同 分野의 雇傭人員은 약 29萬名으로 業体當 平均雇傭人員이 약 50名이어서 企業規模上 영세한 기업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韓國의 경우는 등록된 電子·電氣業体수가 1984年 현재 758個 業体에 불과하며 雇傭人員은 약 27萬名을 상회하므로 企業當 평균고용인원이 360여명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기업규모가 台灣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2) 需給構造

먼저 供給面에서 생산 현황을 보면, 台灣은 1984년에 電子·電氣製品 生産額이 約 95億弗로 韓國보다 約 11億弗을 상회하고 있으며 前年 對比 增加率에 있어서도 台灣은 29.3%로 韓國

(24.9%)보다 높다. 台灣은 전통적으로 部品産業이 발달되어 온데 비해 韓國은 家庭用이나 産業用製品이 비교적 우세하였으나 1984년에 들어와서는 兩國의 생산규모가 거의 비슷한 수준에 들어섰다.

특히 電子部品産業은 1984年중에 台灣이 前年比 30.7% 증가한데 비하여 韓國은 45.5%나 증가하여 台灣과 거의 같은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電子·電氣製品의 輸入은 台灣이 1984年에 約 32億弗 규모를 輸入한데 비해 韓國은 約 46億弗 規模를 輸入하여 輸入依存度에 있어서 韓國(56.0%)이 台灣(42.4%)보다 훨씬 높다.

다음 需要의 측면에서 보면, 韓國 電子·電氣製品 總需要는 1984年에 約 81億弗로 台灣 (74億弗)보다 7億弗이나 상회한다. 따라서 韓國은 生産 및 輸出이 台灣보다 뒤지는데다 輸入依存度가 높아 電子·電氣製品의 자급도는 상대적으로 台灣보다 저조하다.

4. 電子·電氣製品의 輸出構造

韓國의 電子·電氣工業은 台灣보다 훨씬 늦게 시작되는데다 당초에는 生産이나 輸出規模面에서 큰 차이가 있었고 그동안 대만보다 다소 빠른 템포로 伸張되어 왔다하더라도 生産이나 輸出面에서 台灣을 능가하지는 못하였다. 1981~84年 기간중에도 韓國의 電子·電氣製品의 연평균 輸出伸張率은 23.4%를 기록하여 前산업의 輸出伸張率(11.7%)을 크게 상회하며 台灣(16.7%)보다도 伸張率이 크게 높으나 여전히 규모면에서는 台灣을 앞지르지 못하고 있다. 총수출에 대한 비중에 있어서도 台灣의 電子·電氣製品의 輸出比重은 1984年에 21.3%로 台灣 最多輸出品目인데 비해 韓國은 16.4%를 점하여 아직도 韓國의 최다수출품목인 纖維(21.6%)보다 크게 하회한다.

1) 品目別 輸出構造

電子·電氣製品의 全体輸出額中 電子製品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4年에 台灣이 79.8%, 韓國이 87.0%로 韓國이 높은 반면, 電氣製品은 台灣이 20.2%, 韓國이 13.0%를 점하여 台灣이 韓國보다 우세하다.

表 2. 韓·台灣의 電子·電氣産業 概況

區 分	單 位	台 灣		韓 國		
		1983	1984	1983	1984	
業 体 数 (製造業中比重)	個	5,595 ¹⁾		1,068 ²⁾	758 ²⁾	
	%	(5.0)		(2.7)		
雇 傭 人 員 (業体當雇傭員數)	千名	290.9 ¹⁾	360.0 ¹⁾	226.6	273.7	
	名	(52)		(212)	(361)	
需 給	生 産 額 (A)	百万弗	7,315	9,458	6,695	8,360
	輸 入 額 (B)	"	2,361	3,153	3,250	4,556
	輸 出 額 (C)	"	3,777	5,172	3,478	4,783
	內 需 (D)	"	5,899	7,439	6,467	8,133
構 造	輸 出 比 重 (C/A)	%	51.6	54.7	51.9	57.2
	輸 入 依 存 度 (B/D)	"	40.0	42.4	50.3	56.0
	自 給 率 A÷(A+B)	"	75.6	75.0	67.3	64.7

資料 : 韓國電子工業振興會 電子·電氣工業統計 (1984)

台灣, 自由中國之工業(1985. 4)

中華民國勞工統計月報(1985. 2)

註 : 1) 은 電力 및 電子機械器材製造業

2) 는 韓國電子工業振興會 登錄業体數

表 3. 韓·台灣 電子·電氣製品 輸出推移 比較

단위: 百万弗·%

区 分	1981	1982	1983	1984	81~84 연평균증가율	
台	台灣總輸出額(A)	22,611.2	22,204.3	25,122.7	30,456.4	10.4
	電子電氣輸出額(B)	4,170.9	3,911.6	4,853.2	6,579.8	16.4
	電 子	3,325.0	3,034.3	3,777.3	5,174.1	15.9
	電 氣	845.9	877.3	1,075.9	1,405.7	18.4
	輸出比重(B/A)	18.4	17.6	19.3	21.6	
灣	電 子	14.7	13.7	15.0	17.0	
	電 氣	3.7	3.9	4.3	4.6	
	輸出比重(B/A)	12.1	11.7	14.4	16.4	
韓	韓國總輸出額(A)	20,992.6	21,616.1	24,222.5	29,244.9	11.7
	電子電氣輸出額(B)	2,542.6	2,538.8	3,478.1	4,782.5	23.4
	電 子	2,218.6	2,170.2	3,020.7	4,159.6	23.3
	電 氣	324.0	368.6	457.4	622.9	24.3
	輸出比重(B/A)	12.1	11.7	14.4	16.4	
國	電 子	10.6	10.0	12.5	14.2	
	電 氣	1.5	1.7	1.9	2.1	

資料: 韓國貿易協會 輸出統計
台灣財政進出口 貿易統計

電子製品 中 수출비중이 큰 품목은 台灣의 경우 라디오 카세트(16.3%), 컬러TV(9.4%), 흑백TV(6.2%), IC(9.4%), 컴퓨터 주변기기(5.8%), CRT터미널(4.4%) 등이며, 韓國의 경우는 IC(24.3%), 라디오 카세트(12.9%), 컬러TV(10.7%), 흑백TV(6.3%), 트랜지스터(3.2%) 등이다.

최근에 先進國들은 정보산업, 컴퓨터, 통신기기 및 반도체 등 高度技術集約産業에 주력하고 있어 家庭用機器는 先發開途國으로 넘어가고 있는 경향이다. 따라서 韓國이나 台灣은 電子製品 中 産業用 製品의 輸出比重이 아주 낮은 편이며 주로 電子部品類와 家庭用製品이 전체 輸出品의 80% 이상을 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韓·台灣 兩國은 電話機와 交換機를 제외한 다른 産業用 電子機器의 수출이 급신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電氣製品에 있어서는 台灣의 경우 선풍기, 송풍기 등 家庭用製品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韓國의 경우는 변압기, 개폐기, 전선 등 産業用製品의 수출비중이 높다. 輸出規模面에서 韓國이 台灣보다 우세한 품목은 電子製品에

서 컴퓨터, IC, TR 등이며 電氣製品에서는 개폐기, 변압기 정도에 불과하며 거의 모든 품목에서 台灣에 뒤지고 있다. 특히 電子計算機, CRT 터미널, 電話機, 交換機, 축전기, PCB(인쇄회로기판) 등은 台灣보다 크게 뒤지고 있다.

또한 台灣은 中小企業이 많이 난립해 있으면서도 이들 企業의 市場 참여가 활발하고 海外市場情報의 입수나 마케팅 활동 등 國際市場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部品를 중심으로 輸出品目的 다양화가 이루어져 있다.

2) 輸出市場 構造

韓·台灣의 電子·電氣製品의 輸出市場은 서로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양국이 다같이 美國市場에 크게 依存(60%線)하고 있어 美國의 景氣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 外에는 양국이 다같이 香港, 日本, 서독, 영국, 캐나다 등의 市場비중이 큰데, 台灣은 1984년에 輸出額 규모로 볼 때 日本을 제외한 全市場에서 韓國보다 우세하다.

電子製品의 경우 상위 9大 輸出市場을 제외한 기타市場의 비중이 韓國은 15.7%인데 비해 台灣은 4.9%로 韓國의 輸出市場이 대만보다 더 변화가 더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電氣製品의 경우 상위 9大 輸出市場을 제외한 기타 지역 輸出比重은 韓國이 24.2%를 점하는 데 비해 台灣은 36.3%를 점하여 台灣의 電氣製品 輸出市場은 韓國보다 더 변화되어 있다고 하겠다.

개별 품목에 대한 수출대상국을 보면 電子製品의 경우 台灣은 家庭用이나 産業用的 對美輸出이 월등하며 電子部品은 對香港市場 진출이 활발하다. 한편, 韓國의 경우에는 家庭用과 産業用 電子製品의 對美輸出이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하며, 電子部品은 對香港市場 진출도 활발한 편이나 日本市場 진출이 대만보다는 활발하다.

5. 電子·電氣工業의 輸出競爭力

韓·台灣은 電子·電氣部門뿐 아니라 全工業部門에서 生産製品의 구조나 生産, 技術 및 輸出市場 構造가 서로 비슷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國際市場에서도 상호 競爭關係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電子製品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앞으로

表 4. 細部品目別 輸出構造 比較

單位：百萬弗，%

主 要 品 目	台 灣					韓 國				
	1983	구성비	1984	구성비	전년비 증가율	1983	구성비	1984	구성비	전년비 증가율
(전 자 제 품)										
컬 러 T V	265	7.0	487	9.4	84.1	347	11.5	444	10.7	27.7
흑 백 T V	164	4.3	321	6.2	95.8	206	6.8	264	6.3	28.2
라디오·카세트	583	15.4	845	16.3	44.9	386	12.8	537	12.9	39.3
전 자 제 산 기	105	2.8	137	2.6	30.6	23	0.8	27	0.6	16.2
컴 퓨 터	14	0.4	55	1.1	283.3	26	0.9	73	1.8	184.5
C R T 터 미 널	66	1.8	228	4.4	243.8	22	0.7	70	1.7	216.7
컴퓨터 주변기기	64	1.7	300	5.8	367.7	90	3.0	118	2.8	30.7
전화기·교환기	299	7.9	178	3.4	-40.6	163	5.4	92	2.2	-43.7
축 전 기	106	2.8	139	2.7	31.7	53	1.7	69	1.7	30.7
저 항 기	64	1.7	91	1.8	41.3	13	0.4	44	1.1	237.4
IC(집 적 회 로)	336	8.9	489	9.4	45.7	675	22.3	1,009	24.3	49.5
Tr(트랜지스터)	30	0.8	48	0.9	61.1	107	3.5	134	3.2	25.7
Di(다 이 오 드)	11	0.3	40	0.8	259.5	38	1.3	17	0.4	-54.6
PCB(인쇄회로판)	57	1.5	88	1.7	55.6	6	0.2	6	0.2	4.9
기 타	1,614	42.1	1,726	33.4	7.0	1,052	34.8	1,226	30.2	19.4
계	3,777 (77.8)	100.0	5,174 (79.8)	100.0	37.0	3,021 (86.8)	100.0	4,160 (87.0)	100.0	37.7
(전 기 기 기)										
변 압 기	62	5.8	79	6.0	27.4	77	16.8	91	14.6	18.2
개 폐 기						69	15.1	103	16.5	49.3
전 선	87	8.1	87	6.7		136	29.8	95	15.2	-30.1
전 동 기·발 전 기	105	9.8	70	5.4	-33.3	32	7.0	42	6.7	31.3
선 풍 기·송 풍 기	238	22.1	369	28.3	55.0	1	0.2	5	0.8	
기 타	584	54.3	701	53.7	20.0	142	31.1	287	46.1	
계	1,076 (22.2)	100.0	1,306 (20.2)	100.0	21.4	457 (13.2)	100.0	623 (13.0)	100.0	36.3
전 자 · 전 기 합 계	4,853 (100)		6,478 (100)		33.5	3,478 (100)		4,783 (100)		37.5

() 내는 전자 및 전기기기의 비중

資料：韓國關稅研究所 貿易統計年報

韓國電子工業振興會 '84電子電氣工業統計

台灣，中國進出口貿易年刊 및 月報

계속 경쟁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韓·台灣 電子·電氣製品的 競爭關係를 몇가지 指標를 들어 比較하여 본다.

1) 勞働生産性

電子·電氣部門의 종업원 1人當 附加價值창출액은 台灣이 1982년에 8,000弗로 1983年 韓國의 1만 1,000弗보다는 크게 하회하여 勞働

生産性이 낮으나, 台灣의 경우 1983년에 들어 勞働生産性이 향상되었다고 본다면 큰 격차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韓國이 勞働生産性에서 높은 것은 重化學部門 育成施策에 의한 施設投資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 賃金 Cost

表 5. 韓·台灣 電子·電氣製品 輸出市場 構造 (1984年)

단위: 百万弗, %

	台 灣				韓 國			
	電 子	電 氣	計	比 重	電 子	電 氣	計	比 重
美 國	3,234	697	3,931	59.7	2,354	356	2,710	56.7
日 本	330	11	341	5.2	428	28	456	9.5
홍 콩	509	56	565	8.6	240	19	259	5.4
西 獨	225	13	238	3.6	153	3	156	3.3
英 國	218	9	227	3.4	116	7	123	2.6
캐 나 다	165	26	191	2.9	144	17	161	3.4
싱 가 폴	143	33	176	2.7	53	15	68	1.4
호 주	67	15	82	1.2	31	4	34	0.7
사 우 디	29	36	65	0.9	19	23	42	0.9
기 타	254	510	764	11.6	622	151	774	16.2
計	5,174	1,406	6,580	100.0	4,160	623	4,783	100.0

表 6. 韓·台灣 電子·電氣工業의 生産性 比較

	A. 附加價值 (百万弗)	B. 雇傭員數 (千名)	A/B (千弗)
台灣(1982)	2,111	262.4	8.0
韓國(1983)	1,937	174.1	11.1

資料: 韓國의 附加價值는 KIET資料
 經濟日報社 中華民國經濟年鑑 (1984)
 註: 台灣의 附加價值는 電力 및 電子機械器材
 修配業基準(經常價格)
 韓國의 附加價值는 電子製品業 基準
 (80年 不變價格)

최근 수년간(1981~84年) 電子·電氣部門의 賃
 金 코스트 指數를 보면, 양국이 다같이 勞動生
 産性 연평균 증가율(台灣17.7%, 韓國21.6%)
 이 名目賃金 指數의 연평균 증가율(台灣17.2%,
 韓國16.0%)을 상회하여 輸出競爭力을 강화시
 켜 왔다. 그러나 임금코스트면에서 同期間 중
 台灣의 경우 賃金 코스트 指數는 1983년에 하

表 7. 韓·台灣 電子·電氣工業의 임금 코스트 지수

	台 灣			韓 國		
	1981	1983	1984	1981	1983	1984 (1~6)
(1980=100)						
名目賃金指數(A)	116.1	135.9	159.4 (17.2)	125.5	166.0	168.9 (16.0)
勞動生産性指數(B)	119.3	169.2	165.4 (17.7)	135.2	186.0	200.0 (21.6)
賃金Cost指數(C)	97.3	80.3	96.3	92.8	89.2	84.5
$C = \frac{A}{B} \times 100$						

資料: 經濟企劃院, 韓國統計月報(1985. 2)
 行政院, 中華民國勞工統計月報(1985. 2)
 註: () 내 수치는 1981~84年 期間中 年平均
 增加率

락했다가 1984년에 들어와서 상승한 반면 韓國
 은 1981年이래 계속 하락하여 輸出競爭力에 있
 어서 韓國이 다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3) 輸出採算性

台灣의 輸出單價指數는 1981년 이후 상승된

表 8. 韓·台灣 電子·電氣工業輸出採算性 比較

단위: %

	台 灣				韓 國			
	1981	1982	1983	1984	1981	1982	1983	1984
輸出單價指數 A	119.2	122.8	117.1	122.9	100.2	98.1	94.6	94.7
都賣物價指數 B	100.3	100.6	99.6	98.1	105.1	108.1	107.8	107.4
輸出採算性 C	118.8	111.1	117.6	125.3	95.3	90.7	87.8	88.2
$C = A/B \times 100$								

資料: 韓國銀行調查統計月報(1985. 5)
 台灣行政院 物價統計月報(1984. 12)

반면 都賣物價指數는 떨어져 輸出採算性이 개선되는데 비해 韓國의 경우는 輸出單價指數는 1981年 이후 떨어지는데 반해 都賣物價指數는 상승하여 輸出採算性은 惡化된 것으로 나타났다.

4) 企業의 財務構造

企業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賣出額 증가율과 總資本 增加率은 1982, 83年 중 韓國이 台灣을 상회하여 韓國이 우위에 있으나 收益性面에서 賣出利益率은 台灣이 우위에 있으며 總資本利益率은 台灣이 안정적으로 伸張한데 비해 韓國은 1982년에 台灣보다 열위에 있다가 1983년에 급성장하여 台灣을 능가하였다. 한편 財務構造上 台灣은 자기자본비율이나 유동비율이 높은 반면 韓國은 台灣보다 자기자본비율이나 유동비율이 떨어진다. 또한 韓國은 부채비율도 台灣보다 훨씬 높으며 金融費用 負擔率도 높다. 따라서 企業의 안정성면에서도 台灣보다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表 9. 企業經營指標 比較 단위: %

	台 灣		韓 國	
	1982	1983	1982	1983
賣 出 額 增 加 率	7.6	20.8	7.5	41.4
總 資 本 增 加 率	9.9	13.1	11.5	32.9
賣 出 利 益 率	5.6	5.9	2.3	4.5
總 資 本 利 益 率	28.1	31.5	21.1	44.8
自 己 資 本 比 率	40.0	37.9	21.5	22.6
流 動 比 率	125.6	124.7	112.7	115.7
負 債 比 率	149.5	163.6	363.6	342.9
金 融 費 用 負 擔 率	3.9	-	7.2	4.5

資料: 韓國企業經營分析(1984)

台灣銀行 中華民國 台灣地區工業財務狀況調查報告(84. 12)

5) 其他 競爭力 요인

이상에서는 여러가지 競爭力 요인외에도 台灣은 韓國보다 경쟁력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즉, 低金利 水準이나 換率의 安定, 物價의 安定 등이 全産業의 價格競爭力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台灣의 電子·電氣業界는 많은 企業이 外國企業과 合作 또는 外國技術을 도입하고 있어 輸出市場의 확보 등 輸出競爭力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 외에도 台灣은 電子部品の 경우 品

目이 다양화된 데다 자금회율이 韓國보다 높아 (1983年 台灣63.4%, 韓國58.9%) 이러한 요인들도 台灣의 輸出競爭力을 강화시켜주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6. 맺는말

이상에서 우리나라 電子·電氣工業의 여건을 몇가지 指標에 의해 台灣과 비교해가면서 살펴 보았다. 輸出主力産業으로 육성되어온 電子産業이 당면한 문제점은 많은 것 같다. 台灣의 電子工業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우리의 電子産業은 어느 정도 台灣보다는 규모의 經濟에 달해 있고 技術面에서도 뒤지지 않으며 市場潛在力도 갖고 있다.

그러나 主力輸出産業이라는 차원에서 電子工業은 — 물론 우리나라 全産業이 共同的으로 처하여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기는 하나— 무엇보다도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台灣에 비해 大貿易商의 형태로 世界市場에 그런대로 조직력을 갖고 파고 들고 있다. 이같이 유리한 企業規模나 조직력을 갖고 있음에도 台灣보다 輸出이 뒤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台灣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經濟的 여건들이 우리보다 유리하다. 企業의 자율성이나 객관적 요소들 즉, 金利의 安定, 換率의 安定, 나아가 物價의 安定이나 企業의 財務構造上의 安定 등 여건이 우리보다 더 안정된 상황에서 台灣의 企業은 우리 企業보다 경쟁력을 더 유리하게 키워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企業의 단위가 큰 것만이 무조건 좋은 것 같지도 않다. 몸이 비대할수록 좁은 문을 빠져나가기가 부담스럽다. 우리의 電子業界가 西歐 先進國의 高度技術을 빨리 흡수하는 것도 좋겠으나 이들 高度技術을 어떻게 흡수하고 개량하여 우리 特有的 技術商品을 개발해 나가느냐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台灣은 1984年 中에 20여개 품목이 世界市場에서 首位市場 占有品目으로 밝혀졌다. 이들 품목은 결국 다른 나라가 눈을 돌리지 않는 品目들이 많다. 그 중에는 電算터미널, 장식용 電球, 실리콘 整流二極體, 微小電動機 등도 포함되어 있다. 즉 우리 固有의 商品을 開發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 본다. 이는 또한 先進國의 輸入規制障壁을 피하는 길도 된다.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 품목을 다양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품목의 다양화는 市場의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市場不況을 분산시킬 수도 있다. 台灣의 경우 많은 中小企業이 난립해 있는 것이 短點으로 作用할 수도 있으나, 반면 品目は 다양화할 수 있고 經濟不況

에 쉽게 대처할 수 있는 長點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限界性を 내포하고 있는 價格競爭力보다는 비가격경쟁력을 키워 나아가야 할 것이다. 技術의 개발, Marketing 戰略, 市場 및 商品情報의 신속한 입수와 그에 대한 대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用語解説

Ada

美國防省이 중심이 되어 79년에 開發한 高級 Program言語로서, 並行處理 機能 및 例外處理 機能 등을 갖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超高級言語의 一種이라고 하는 일도 있다. 開發 目標은 國防省이 省内에서 利用하고 있는 각종 Software의 機能 擴張, 保守費用의 節減을 위한 것으로, 今後의 폭넓은 用途가 期待되고 있다. 보다 더 使用하기 쉽게 하고자 현재도 研究 開發이 활발히 進行되고 있다.

ADABAS

美國의 Software Age社가 開發한 Data Base管理 System(DBMS)의 하나로, 大型 Computer指向의 汎用 Software製品이며, 世界의인 Best Seller Software가 되었다. 日本에서는 美國 Software Age社의 子會社인 Software Age of Far East가 販賣하고 있으며, 最近에 보다 機能을 擴張한 改善版 및 小型 Computer를 위한 簡易版 등 製品整備도 증가되어 왔다.

Analog Computer (아날로그 計算機)

時間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入力에 算術演算을 행하고, 이것의 出力을 連續量으로서 圖形 또는 Graph, 또는 다른 機械의 동작을 制御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計算機다. Analog 計算機는 入力에 대해 實時間으로 反應하는 것으로 System의 Simulation 및 고도의 自動制御 등에 응용되고 있다.

ANNECS (Automated Nikkei Newspaper Editing & Composing System)

日本經濟新聞社가 採用하고 있는 Computer를 이용한 新聞의 電子編輯, 自動組版 System의 名稱. 67년에 System 開發에 착수, 71년 5月の 試驗을 거쳐 11월에 System을 완성, 72년 3月부터 日本經濟新聞 紙面의 본격 製作을 시작하였다. 이후 製作面數를 늘리고, 73년 10月에는 全面 Computer製作에 의한 内外 처음으로 日本經濟新聞社의 日刊紙 日經產業新聞을 發刊하였다.